

부르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지.

생제당호는 우리가 자기들을 구조하러 올 수 있을만한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3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대포를 쏘아댔네. 라 부르도네 씨는 모래사장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불을 크게 지피도록 했고, 근방의 모든 주민들 집으로 사람을 보내 식량과 나무판자, 밧줄, 그리고 빈 통을 찾아오게 했지. 곧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금모래 마을, 웅덩이 지구, 보루의 강 유역 등지의 취락에서 모여들었고, 그들이 식량과 신구를 잃어진 흑인 노예들을 거느리고 당도하는 모습이 보였네. 이 주민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총독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네.

“총독 각하, 밤새도록 산에서 둔중한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숲에서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고, 바닷새들은 피난처를 찾아 육지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어김없이 태풍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 그쯤 해둡시다!”

총독이 답했네.

“여러분, 우리는 태풍에 대비되어 있고, 그 배도 분명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실지 모든 것이 곧 태풍이 들이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네. 뚜렷하게 중천을 가르는 구름은 중앙은 무시무시할